

경기에서 진 패권자

지략과 담력은 령장이 지녀야 할 필수적인 자질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모든 자질들을 천품으로 지니고 계신다. 여기에 이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날 어리신 원수님께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기용뽀트회사에서 일하는 어느 한 외국인이 《파운틴》 상표의 경기용뽀트들을 가지고 원산에 왔다는 소식에 접하게 되시였다.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서 《뽀트명수》라고 불리는 그는 자기의 경기용뽀트운전술에 대하여 자부하였다.

그날 밤 원수님께서는 기차를 타시고 항구도시 원산으로 향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느 한 부두에서 그 외국인과 만나 그가 가지고 온 경기용뽀트들의 기술적특징들을 물으시고나서 그에게 뽀트경기를 한번 해보자고 하시였다.

그이의 대담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그 외국인기술자는 경기용뽀트의 속도가 시간당 200km인것만큼 경기항로를 직선으로 하자는 청을 드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신의 의도는 뽀트의 성능이나 알아보자는것이 아니라 그와 경쟁하자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그의 제의를 거절하시였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였다.

자만감에 빠져있던 외국인기술자는 경기용뽀트를 천천히 몰았지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처음부터 속도를 높여나가지였다. 외국인기술자도 속도를 내기 시작하였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상대가 어리신 도전자라고 하여 경솔하게 처신하였던 자신을 뒤늦게야 질책하며 패권자는 경기를 다시 해주실것을 간청드렸다.

두번째경기에서 이 《뽀트명수》는 자기의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려고 결심한듯 싶었다. 그는 귀환점을 향해 쏘살같이 내달렸지만 지나친 속도로 하여 귀환점에 이르러서는 귀환점을 멀리 벗어나 배머리를 돌리게 되였다. 바로 이순간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타신 뽀트는 안전하게 귀환점을 돌아 경쟁자를 멀리 떨구게 되였다.

경기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경기에서 또다시 이기신 어리신 원수님께 열렬한 환호성을 터쳐올렸다.